

# XIV EDIZIONE SICILIA EN PRIMEUR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4번째로 열리는 시칠리아 앙프리모르에 다녀왔다. 마르살라로 시작된 이곳의 와인양조는 이제 다채로움을 벗어나 토착품종의 본질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와인시장의 접근도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칠리아 와인의 현주소를 스케치한다. 글 이정은 사진 이정은, ASSOVINI SICILIA, SOPEXA ITALIA

Thanks to 시칠리아 앙프리모르에 초대해 준 아소비니 시칠리아(ASSOVINI SICILIA) 협회와 모든 프로그램을 가이드해 준 소펙사 이탈리아(SOPEXA ITALIA)의 관계자들, 그리고 방문했던 와이너리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표한다.



시칠리아 앙프리모르에 참가한 와이너리 관계자들



1 수명이 오래된 네렐로 마스칼레제 포도나무  
2 알베렐로 방식으로 재배되는 네로 다볼라  
3 시칠리아의 유일한 DOCG 지역인 비도리아  
4 시칠리아는 경사가 심한 포도밭이 많다  
5 에트나 산지 전경



### 지극히 시칠리아다운 시칠리아 섬

에트루리아인, 로마 공화정에 의해 분리되고 합쳐지고를 반복한 이탈리아 역사는 20개주로 나누어진 지금도 하나로 묶이지 못하는 방대한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에 떨어져 있는 시칠리아는 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특별함을 상상을 초월한다. 아랍,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지배를 받으며 그만큼의 흔적들이 아직도 이들의 역사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칠리아 안에서도 통일은 힘든 상황이다. 시칠리아 와인의 시작에도 그리스의 영향력이 짙게 배어 있다. A.C. 7~6세기 그리스의 품종과 더불어 알베렐로(Alberillo)라는 재배방법이 도입되면서 포도밭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 세상에 시칠리아 와인을 알린 것도 현지인이 아닌 영국 사람에 의해서다. 지금은 DOC 지역으로 정해진 마르살라의 포티파이드 와인인 마르살라가 그것이다. 영국인이었던 존 우드하우스(John Woodhouse)는 솔레라 방식으로 양조한 마르살라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마르살라 지역으로 귀향하기도 했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시칠리아도 나름대로 체계적인 포도재배와 와인생산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와이너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세메솔리 디 멘피(Settesoli di Menfi)와 칸파나 소찰레 디 트라파니(Cantina sociale di Trapani)는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1970년대에 좀 더 구체적인 와인의 생산에 대한 정리가 시작된다. 처음에 양조하였던 국제적인 품종에 대한 생산을 멈추고 토착 품종에 집중하면서, 알코올의 도수를 낮추는 등 양조의 기술에도 섬세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트라파니 지역부터 DOC의 등급으로 출시되는 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트라파니 지역은 아직까지 전체 시칠리아 와인 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곳의 와이

너리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고, 레이블을 붙여서 출시하는 와인이 20% 안팎이라고 하니 생산량을 따지면 이보다 더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트라파니의 대표 품종인 네로 다볼라의 최고 산지인 노트(Note)는 아직까지 네로 다볼라에 대한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세련되고 우아한 네로 다볼라의 지속적인 출현은 이들의 노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릴로(Grillo)의 양조의 변신도 꼽을만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르살라를 만드는 기본 베이스의 와인으로서만 여겨졌던 그릴로는 단독으로 양조되고, 또 오크 숙성을 거치기도 해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트라파니 지역이 시칠리아 와인 생산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의 관심 지역은 에트나(Etna)로 옮겨왔다. 이곳에서는 네로 다볼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지역은 레드 품종으로 네렐로 마스칼레제(Nerello Mascalese), 네렐로 카푸초(Nerello Cappuccio), 화이트로는 가리칸테(Carricante), 까따라또(Catarratto)가 그 주인공들이다. 까따냐 시내에서도 에트나의 활화산의 붉은 열기가 보이는 이 지역은 화산토가 주는 매력과 토착품종들의 개성이 엮여져 신선하고 또 색다른 와인을 양조한다. 네비올로의 특징과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룬다고 평해지는 네렐로 마스칼레제의 양조는 그래서인지 빼에몬테에서 온 와인 양조가들이 손을 댄 와이너리들이 상당수이다. 시칠리아 영프리피르의 기간에 접한 소식이 빼에몬테 바르바레스코의 명가인 가야(Gaja) 와이너리의 안젤로 가야(Angelo Gaja)가 에트나에 포도밭을 사들였다는 뉴스였다. 이 지역이 에트나의 용암만큼 핫한 곳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뜨거운 감자인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트라파니의 반대쪽에 위치한 에트나, 메씨나(Messina)의 와인 생산에 세계와인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터,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 시칠리아 영프리미르에서 만난 생산자들

세계 각국에서 약 7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이번 시칠리아 영프리미르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시칠리아의 와인너리를 방문하는 일이었다. 기자들은 각 그룹으로 나누어져 세분화된 지역으로 흩어졌다. 필자는 트라파니와 마르살라를 위주로 6곳의 와인너리를 방문하였다.



1 알렉산드로 디 캄쁘레알레 와인메이커 베네데토 알렉산드로



### 알렉산드로 디 캄쁘레알레 *Alessandro di Camporeale*

4대째 와인너리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알렉산드로 디 캄쁘레알레는 1999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지역 와인너리에 포도를 팔다가 2000년부터 양조를 시작했다. 이곳의 와인메이커로 일하고 있는 베네데토 알렉산드로(Benedetto)는 “우리는 50ha에서 까따라또, 그릴로, 네로 다블라, 소비농 블랑, 시라를 재배한다. 특히 시라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은 크다. 물론 다른 와인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라는 손에 꼽히는 편이다. 또한 시라로 만든 스위트 와인도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곳 역시 포도밭은 유기농으로 관리되고 있다.



### 데이 프린치피 디 스파다포라 *Dei Principi di Spadafora*

자코모 타키스의 컨설팅으로도 이름을 알린 데이 프린치피 디 스파다포라는 총 80ha를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레이블에 인증 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이곳의 오너인 프란체스코 스파다포라(Francesco Spadafora)는 “우리 포도밭은 알카모, 노토 등지에 흩어져 있다. 조만간 다른 지역에 새로운 포도밭을 찾는 예정에 있다. 양조는 모든 와인 시멘트 통을 거치는 전통식을 따른다”고 설명하였다. 요리사보다 훌륭한 솜씨를 보여 준 프란체스코 오너의 메뉴로 이들의 와인을 시음해볼 수 있었다.



2 발리오 디 피아네토의 디렉터 레나토 데 바르톨리



### 발리오 디 피아네토 *Baglio di Pianetto*

발리오 디 피아네토는 팔레르모에서 약 20km 떨어진 산타 크리스티나 마을의 DOC 지역인 몬레알레(Monreale)에 위치한다. 이곳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레나토 데 바르톨리(Renato De Bartoli)는 “우리 와인너리는 현재 3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1,000ha의 농경지 중 포도밭은 103ha 정도이다. 몇 년 전 유기농 인증을 받고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줄리아, 메를로, 뽀띠 베르도, 비오니에, 네로 다블라를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발리오 디 피아네토는 와인 이외에도 올리브유 생산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3 뛰어난 요리 솜씨로 정성을 준비해 준 프란체스코 스파다포라 오너



4 테누따 라피탈라 와인메이커 실비오 첸톤제



### 테누따 라피탈라 *Tenuta Rapitala*

테누따 라피탈라는 1977년부터 양조를 시작하였으나 프랑스의 공작이 이곳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1999년 그룹으로 재조직 되었다. 현재는 180ha에서 3백 만병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와인메이커인 실비오 첸톤제(Silvio Centonze)는 “와이너리에 기술과 경영의 재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와인 품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시칠리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와이너리로 꼽힌다. 약 30%를 수출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북유럽 중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큰 거래처이다”라고 말했다.



4



5 페우도 디시사의 디렉터 마리오 디 로렌조(좌)와 그의 가족들



### 페우도 디시사 *Fuendo Disisa*

가족경영 와인너리로 180ha를 소유하고 있다. 네로 다블라, 까따라또 인줄리아, 그릴로를 주로 재배한다. 이곳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마리오 디 로렌조(Mario di Lorenzo)는 “연간 약 150,000병을 생산하고 있는데, 시칠리아 내에서의 소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벨기에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버려졌던 페리코네(Perricone) 품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마르살라를 만드는데 쓰였던 품종이지만 요 근래 우리 이외에도 단독으로 양조하는 와이너리가 몇 곳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6 아지엔다 아그리콜라 랄로의 디렉터 안드레아 베스코



### 아지엔다 아그리콜라 랄로 *Azienda Agricola Rallo*

1860년에 설립된 랄로 와인너리는 처음에는 시칠리아의 모든 농산물을 파는 일을 했었다. 20년 전 마르살라 와인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와인너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와인너리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는 안드레아 베스코(Andrea Vesco)는 “처음에 마르살라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테이블 와인 생산이 대부분이다. 특히 까따라또의 화이트 와인은 감베로 로소의 트레비끼에리에 여러 번 오를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팀들은 이곳의 까따라또 2011, 2012, 2013, 2015를 버티컬로 테이스팅해 볼 수 있었다.





## 시칠리아 와인의 발견, 14번째 시칠리아 앙프리피르

1998년, 플라네타의 디에고 플라네타(Diego Planeta), 돈나푸가타의 자코모 랄로(Giacomo Rallo), 타스카 달메리타의 루치오 타스카 달메리타(Lucio Tasca d'Almerita)는 시칠리아 와인의 품질을 높이고 해외시장의 진출을 위해 협회를 만들었다. 바로 아소비니(Assovini)가 그것이다.

아소비니는 가족경영 와이너리로 포도밭의 관리와 양조가 안정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18년이 지난 지금 76곳의 와이너리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으며 시칠리아 와인의 품질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아소비니는 이것 이외에도 시칠리아 와인을 시장에 출시 전 미리 시음해 볼 수 있는 '시칠리아 앙프리피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4번째 맞는 행사가 지난 4월 29일 시칠리아의 까파니아 라디체푸라(Radicepura) 정원에서 열렸다. 아소비니의 대표 프란체스코 페레리(Francesco Ferreri)는 "시칠리아의 환경을 생각하는 아

소비니는 앙프리피르의 행사를 이곳 라디체푸라 정원에서 실시한다. 이곳은 매년 이 시기에 가든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시칠리아의 독특한 나무, 열대지역의 정원 등을 관람하여 와인을 시음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 이번 시칠리아 앙프리피르에는 49개의 와이너리가 참가한다. 현재 시칠리아의 와인은 발전 단계에 있다. 우리는 시칠리아 와인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칠리아의 음식과 와인,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곳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현재 110개의 국가에 시칠리아 와인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그릴로와 네로 다볼라에 대한 DOC 지역의 증가에 대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시칠리아 앙프리피르 2017은 총 49개의 와이너리가 참가하여 2016 빈티지의 와인들을 선보였다. 시음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어졌으며 그릴로, 네로 다볼라, 시칠리아의 스위트 와인인 마스틀라클레스도 열려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내었다. ☺

## 시칠리아 앙프리피르 2017 참가 와이너리

ALESSANDRO DI CAMPOREALE  
ASSULI  
AGRICOLA GREGORIO DE GREGORIO  
AZIENDA AGRICOLA TORNATORE  
BAGLIO DEL CRISTO DI CAMPOBELLO  
BALIO DI PIANETTO  
BARONE DI VILLAGRANDE  
BARONE SERGIO  
BENANTI  
CANTINE COLOSI  
CANTINE EUROPA  
CANTINE STEESOLI  
CARUSO & MININI  
COSTE CHIRLANDA  
COTTANERA  
CUSUMANO  
DONNAFUGATA

DUCA DI SALAPARUTA -CORVO-FLORIO  
FAZIO CASA VINICOLA IN ERICE  
FEUDI DEL PISCIOTTO  
FEUDO ARANCIO  
FEUDO DISISA  
FEUDO MACCARI  
FEUDO MONTONI  
FEUDO PRINCIPE DI BUTERA  
FIRRIATO  
FONDO ANTICO  
GIROLAMO RUSSO  
GRACI  
LE CASEMATTE  
MAGGIOVINI  
MARCHESI DI SAN GIULIANO  
MASSERIA DEL FEUDO  
NICOSIA

PALMENTO OSTANZO  
PIETRADOLCE  
PETER VINDING MONTECARRUBO  
PLANETA  
RALLO AZIENDA AGRICOLA  
SPADAFORA DEI PRINCIPI DI SPADAFORA  
TASCA D'ALMERITA  
TENUTA DI FESSINA  
TENUTA GATTI  
TENUTA GORGHI TONDI  
TENUTE LOMBARDO  
TENUTE RAPITALA  
TERRE DI GIURFO  
VALLE DELL'ACATE  
ZISOLA